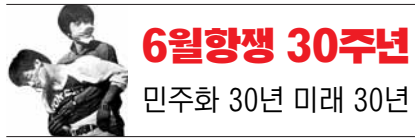


# 5·18이 뿌리...국본 첫 출범 광주정신 담아 재정리해야



〈하〉 6월항쟁사 다시 쓰자

6월항쟁사(史)를 새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월항쟁을 1987년 한 해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발단도 박종철 열사 사망사건으로 단편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부산·대구 등 대도시는 물론 순천·목포·여수 등 소도시까지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사실이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전남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007년 발간 항쟁사, 1987년 한해 다루고 발단도 단편화 전국적인 항쟁 불구 서울만 기술...광주·전남 등 지역 배제 5·18→6월항쟁→100만 촛불로 이어지는 역사 기술돼야

6·10항쟁 20주년 당시 2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2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6월민주항쟁사가 담긴 책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가 발간됐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6·10항쟁을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사망에서부터 6·29선언이 나올 때까지로 한정해서 기술한 것이 논란이 됐다. 6월항쟁 이전에 있었던 운동과 단절되고, 6·29 선언 이후 6월항쟁 때 함께 싸운 노동자들의 대투쟁과 같은 내용이 전혀 담

겨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전국적인 항쟁이었음에도 서울만 있고 지역은 거의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국본 전남분부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6월민주항쟁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은 6월항쟁 최초로 '국본'의 기발을 들었고, 전국 최초로 진행된 '4·13호헌 철폐를 위한 천주교 광주사제단의 목숨 건 단식농성' 역시 광주에서 시작됐다. 이는 기독교와 불교로 이어졌고, 종교인들의 투쟁은 외신기

자들의 주목을 끌게 됐다. 1980년 '광주만의 고립'이 가져다 준 교훈이었다.

기념사업회는 "6월항쟁의 뿌리는 5·18이었고, 6월항쟁의 시작지도 광주였다"고 강조했다. 6월항쟁의 발단과 배경을 5·18 민주화운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진 6월민주항쟁30주년광주전남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6월항쟁의 뿌리가 5·18이라는 것을 인식하려면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며 6월항쟁사 재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5월 광주'를 부산시민에게 알리는 것이었고, 이는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고 '5월 광주'의 의미를 강조했다.

6월민주항쟁 이후 100만 촛불투쟁이 이어지기까지의 역사도 기술돼야 한다는 주

장이다. 6월항쟁 이후 붓물처럼 터져나온 민주화 요구는 노동·농민·문화·청년학생·여성 등 사회 각 부문운동의 성장을 견인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탄생의 밑거름이었다. 또 선거를 통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민운동의 영역이 등장했고, 이러한 시민운동이 진화를 거듭해 최근 100만 촛불집회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6월항쟁 당시 식발투쟁을 한 박춘애 광주전남총수석교사는 "6월항쟁은 5·18의 연장선에 있다. 5·18이 광주만의 고립된 싸움이었던 6월항쟁은 5·18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투쟁이었다. 5·18진상규명, 1991년 분신정국 등 저항정신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결과로 6월항쟁이 일어났다. 그 경험 이 지난날 촛불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왜? 대학병원이서 이틀새 두차례 투신 소동

이틀 사이 광주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2차례 자살 투신 소동이 벌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낮 12시33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 옥상에서 40대 남성 환자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20분 만에 구조됐다. 응급실 내원 환자인 A(48)씨는 이날 응급실 퇴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주차장 옥상으로 달려가 "뛰어내려 죽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주차장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지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는 주차장 1층 주변에 이동식매트 등을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 20분간의 경찰과 소방의 설득 끝에 A씨는 낮 12시53분께 구조됐다.

이 병원에서는 전날인 7일 오후 1시 12분께에도 40대 남성의 자살소동이 있었다. 신경과 입원환자인 B(42)씨는 이날 신경과계통에 이상 없다고 판단한 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 응급실 5층 옥상에 올라가 2시간 가까이 자살 소동을 벌였다.

B씨는 자살소동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용해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119에 전송하기도 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 자살방지센터에서 나온 직원들의 설득 끝에 오후 3시20분께 스스로 옥상에서 걸어내왔다. 구조된 B씨는 가족에게 인계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중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씨 인터뷰

#### “요즘처럼 최루탄 없는 시대 태어났으면 촛불 잊지 말고 민주 열사들 기억해주길”

“한열이가 요즘처럼 최루탄 없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 십 번씩 합니다.”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이틀 앞둔 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77)씨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열이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배 씨는 “아직도 대학교 신입생 때 한열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듯이 나는 다”며 “자신보다 남을 배려한 착한 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런 착한 아들이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아들의 죽음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광주에 살던 배씨는 그날 이후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광주와 서울 등 전국을 누볐다.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 행사 등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배씨는 “집에 있으면 계속해서 아들이 생각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며 “솔직히 민주주의에 대해 잘 몰랐다. 그저 사

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아들이 다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움직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시민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실현됐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다면 촛불 든 국민 앞에 최루탄이 날아왔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씨는 “민주주의가 살아난 것 같아 기쁘다”며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씨는 또 “국민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촛불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해야 하며, 한열이가 당한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이어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광화문과 금남로에 모여 촛불을 든 이유를 결코 잊지 말고, 6월 항쟁의 열사들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채용박람회 구직자들 소망은... 8월 '2017 현대 기아차 협력사 광주 채용박람회'가 열린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부품협력사, 판매협력사, 설비 원부자재 협력사 등 23개 협력사가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배란다 창고서 숨진 80대 타살 여부 규명 안돼

지난 6일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배란다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인의 타살 여부가 부검을 통해서도 규명되지 않아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정황을 고려할 때 타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82)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부의 힘에 의해 목이 졸렸는지, 창고 내부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누워있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힌 것인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직접적인 사인은 ‘질

식’이지만, 질식사해 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며 “타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밤 11시55분께 자신의 아파트 배란다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딸들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과 함께 찾아 나서 집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문이 닫힌 창고 내부에서 발을 하늘로 향한 채 누운 자세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어선 폐수 바다 무단배출 여수해경, 기관장 적발

어선에 고인 폐수를 바다에 불법 투기한 기관장이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9급 어선 D호(여수산적)의 기관장 김모(41)씨를 바다에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55분께 여수시 장군도와 거북선대교 인근 바다에서 기관실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에 고인 폐수 1260ℓ를 바다에 배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음주 손님 택시안 소변 ‘아팔싸’

○...술을 마시고 택시에 소변 본 것도 모자라 택시요금도 내지 않고 도주하려던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서행.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택시를 탄 김모(26)씨는 택시가 신호대기중일 때 뒷문을 열고 도망치려다 이를 제지하려던 택시기사 김모(59)씨를 밀쳐 폭행한 혐의.

○...경찰은 “김씨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 실수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고 들끓게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려다 이를 눈치 챈 택시기사에게 붙잡혔다”며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요금을 내놓으라’는 택시 기사를 밀쳐 허리까지 다치게 했다”며 혀를 끝글.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 대형모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